

현대화에 대한 논의 - 리 루(Li Lu) 시리즈

제 2 부: 인류 문명의 역사적 관점에서 본 미중 관계의 미래

2018 년 12 월 13 일

1. 서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어 왔으며, 우리 눈앞에서 무역 전쟁으로 격화되었다. 이 무역 전쟁은 어떻게 끝날 것이며, 중국은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될까? 끊임없이 쏟아지는 24 시간 뉴스 사이클이 만들어내는 혼란의 안개 속에서, 우리는 종종 현재를 설명하거나 미래를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 글은 오늘날 미중 관계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오늘날의 세계 사건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류 문명 진화의 역사적 맥락에서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검토해야 한다 – 중국의 독특한 정치 체제와 문화는 어떻게 발전했으며, 그 과정은 서구에서 일어난 일과 어떻게 달랐는가? 현대화는 어떻게 서구에서 등장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가? 현재의 세계 질서는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미국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떻게 다른 국가들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배하는가? 미국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하드 파워는 무엇이며, 현재 세계 질서, 특히 경제 분야에서 미국은 얼마나 많은 의사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가? 중국은 어떻게 지난 40 년 동안 현 세계 질서 하에서 전례 없는 성장을 이루었으며, 지금 어떤 문제에 직면해야 하는가? 현재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압박 속에서 중국은 앞으로 어떤 선택지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함정을 피해야 하는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현대화를 달성하는 데 어떤 종류의 미국과의 관계가 최선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체계적으로 답할 때만이 우리는 중국의 미래를 명확하게 검토할 수 있다.

2. 인류 문명의 아주 간략한 역사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등장한 주요 종인 호모 사피엔스는 약 10 만 년에서 20 만 년 전 아프리카 적도 부근의 사바나에서 처음 출현했다. 호모 사피엔스는 사회적 동물일 뿐만 아니라 고도로 발달된 뇌를 가진 개인주의적 동물이기도 하다. 지구상에 고도로 사회적이면서 동시에 고도로 개인주의적인 다른 종은 없다. 인간이 이전의 영장류와 차별화되고 짧은 시간 안에 전례 없는 정교한 문명을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특성들의 독특한 조합 덕분이었다. 나는 이런 맥락에서 문명을 인간과 그들의 인류 조상 사이의 차이로 정의한다. 인류 문명의 역사는 에너지 포획과 사용의 경제사이자 사회 조직의 정치사이다. 경제와 정치의 상호 작용은 우리에게 독특하게 인간적인 복잡한 문명을 선사했다.

"리 루의 현대화 논의"(2014)에서 나는 인류 문명의 역사를 세 단계의 진보로 나누었다: 수렵-채집 문명(문명 1.0), 농경 문명(문명 2.0), 그리고 현대 과학 기술 문명(현대 과기 문명 또는 문명 3.0)이다. 이 글은 농경 문명에서 현대 과기 문명으로의 거대한 도약 동안 사회-정치 제도의 진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 분석은 현재 미중 갈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도울 것이다.

농경 문명 시대에는 농사와 동물 가축화 모두 유리한 자연 조건이 필요했으며, 이것이 대부분의 문명이 유라시아 판에서 탄생한 이유이다. 이 판은 히말라야("세계의 지붕")와 끝없는 툰드라에 의해 동서로 나뉜다. 농경 시대 내내 인류 문명의 이 두 부분은 거의 또는 전혀 직접적인 접촉 없이(13 세기 몽골 제국 통치 기간의 짧은 접촉 제외) 독립적으로 발전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그들을 서구 문명과 동양 문명으로 지칭해왔다.

서기(CE)가 시작될 무렵, 거의 동시에 두 개의 강력한 제국이 등장했다 – 서쪽의 로마 제국과 동쪽의 한 왕조였다. 두 제국 모두 많은 인구, 광대한 영토, 그리고 제국 구석구석을 연결하는 잘 발달된 교통망을 가지고 있었다. 둘 다 농경 문명의 정점에 도달했다.

로마 제국과 한 왕조는 모두 건국 후 약 400 년 만에 멸망했다. 두 지역 모두 갈등과 전쟁의 시기로 접어들었다. 동양에서는 약 300 년간의 격동기를 거쳐 중국의 여러 국가들이 통일되었고 옛 제국의 통치가 대체로 복원되었다. 수, 당,

송 왕조 시대에 중국 문명은 새로운 정점에 도달했다. 2,000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중국 제국은 농경 시대의 경이로움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로마 제국 멸망 이후 또 다른 통일 제국이 등장하지 않았다. 비록 이슬람 제국이 한때 등장하여 상당한 영토를 확보했지만, 로마 제국과 같은 찬란한 문명은 아니었으며, 인구, 기술, 사회 구조 또한 갖추지 못했다. 이것이 두 문명의 발전 궤적에서 첫 번째 주요 분기점이었다.

그 후, 1,000 년의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로마 제국 시대에는 북방 야만족의 본거지였던 유럽에서 여러 매우 역동적인 민족 국가들이 부상했다. 이 활기찬 국가들은 대항해 시대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으며, 각기 에너지 넘치게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다. 그들은 대항해 시대, 르네상스, 계몽주의, 종교 개혁, 과학 혁명, 산업 혁명, 다양한 식민 전쟁 등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이 유럽 국가들은 세계 무대에서 가장 역동적인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들은 또한 인류 문명의 새로운 시대를 연 최초의 국가들이었다. 나는 이것을 문명 3.0 - 현대 과학 기술 문명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동양과 서양 사이의 두 번째 주요 분기점이다. 현대 과기 문명의 출현은 양측의 인구 중심지를 처음으로 하나로 모았다. 이때부터 동양과 서양은 더 이상 서로 독립적이지 않았다. 그들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었고, 함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창조하기 위해 협력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모든 인류에게 심오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농경 문명 시기 중국의 제도 혁신

동서양 분기의 두 사례 모두 새로운 경제 현실과 진화하는 사회-정치 구조라는 복잡한 배경 속에서 발생했다. 농경 문명에서는 광합성이 주요 에너지원이었음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토지는 가장 귀중한 자원이었고 농경 문명 갈등의 주요 원인이었다. 바로 이 때문에 농경 문명은 이 고유한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었다: 토지가 더 많으면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가 특정 지점에 도달하면 토지가 더 이상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없게 되며, 마침내 사회 발전은 정체되고 맬서스 함정(Malthusian Trap)에 빠지게 된다. 결국 다양한 "자연재해와 인재"로 인해 인구 수준은 다시 낮아졌다. 농경 문명은 경제적 희소성의 시대였으며, 대부분의 갈등 중심에는 빈번한 토지 쟁탈전이 있었다. 이러한

갈등에서 승리하는 것은 적절한 지리적 위치와 정치 조직의 조합, 그리고 사회 전체를 동원하는 능력에 달려 있었다.

중국 문명이 발전한 지리적 환경은 서쪽의 히말라야, 북쪽의 혹한의 초원, 동쪽과 남쪽의 바다를 포함한다. 이 땅에는 양쯔강과 황하라는 두 개의 거대한 강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 농업에 적합한 광활하고 비옥한 충적 평야를 형성한다. 이 두 강은 지류와 함께 잘 발달되고 접근성이 좋은 교통망(수로로는 저렴한 운송 수단)을 형성한다. 이러한 유리한 조건 하에서 정부는 임계량의 경제력만 축적하면 저렴한 교통망을 통해 영토 전체에 권력을 확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강력한 국가의 부상은 국내 정치 조직을 위한 제도 혁신 또한 요구한다.

5,000 년 중국 역사에서 처음 3,000 년이 가장 중요했는데, 정치 혁신의 돌파구가 다음 2,000 년 안정의 견고한 기초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그중 가장 위대한 것은 진(秦)나라 효공(孝公) 시대에 이루어진 중국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상앙(商鞅, 기원전 390-338)의 개혁이었다. 그의 개혁의 핵심은 정치 권력 배분 수단으로서 혈연관계를 대체하는 능력주의(meritocracy) 시스템의 도입이었다. 인간은 동물에서 유래했으므로 초기 사회 관계가 단순히 혈연관계에 기반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비록 개인이 전쟁터에서의 성공으로 보상을 받았지만, 상앙 이전에는 승리의 전리품이 여전히 혈통에 따라 분배되었다. 공로는 부처럼 세습될 수 있었다. 전쟁터의 영웅들은 토지를 하사받고 기사 작위를 받았으며, 귀족과 군주 역시 혈족에게 토지를 하사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봉건 시대에 권력과 경제 자원이 분배되는 방식이었다 – 상앙에 의해 이러한 시스템이 완전히 파괴되고 뒤집히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는 능력주의를 제정하고 공로는 다음 세대로 세습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세습될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은 황제의 권력이었다. 새로운 정책 하에서는 부는 상속될 수 있었지만 정치 권력은 그럴 수 없었다. 그의 개혁은 진정으로 혁명적이었다. 그것은 봉건 제도를 뒤엎고, 진나라가 작고 변방의 국가에서 결국 중국을 통일하는 제국으로 부상할 수 있게 했다. 상앙의 정책은 진나라 전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했다. 진나라는 매우 강해져 다른 나라들을 물리쳤다. 중국을 통일한 후 진 왕조는 모든 영토에 동일한 시스템을 시행했다. 그 후 한 왕조와 그 "효렴제"(舉孝廉制, 효(孝)와 청렴(廉)의 덕목에 기반한 제도)가 등장하여 능력주의 시스템을 강화했다. 이 시스템은 수 왕조가 끝난 직후 완전히

시행된 과거제(科擧制, Imperial Examination System)의 전신이었다. 과거제는 공무원 지원자들의 공무원 처리 능력뿐만 아니라 일반 지식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여 시험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상승 이동의 길을 제공했으며, 정치 권력을 배분하는 더 공정한 방법이었다. 전반적으로 상앙 개혁은 이후 2,000 년 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 체제의 초석을 놓았다. 이 시스템은 여러 왕조의 흥망성쇠를 목격했으며, 중국 제국을 농경 문명의 정점으로 이끌었고, 그 시대의 "역사의 종말"을 고하는 것처럼 보였다.

한편, 서양에는 농업에 적합한 충적 평야가 비교적 작고 파편화되어 있었다. 교통 수단으로는 지중해가 있었는데, 거의 호수처럼 육지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좁은 해협으로 대서양과 연결되어 있어 잔잔하고 항해하기 쉬웠다. 이곳은 제국 탄생의 이상적인 장소였다. 지중해 분지에는 이집트에 농업 평야가 있었고 이베리아 반도(현재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위치한 곳)에는 더 작은 평야가 있었다. 그러나 이 평야들은 모두 중국의 평야보다 훨씬 작았다. 당시 유럽 대륙의 숲은 아직 농경을 위해 개간되지 않은 원시림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로마 공화국은 이미 현재 이탈리아 중부 지역에서 부상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경작지가 제한적이어서 다른 지역을 정복함으로써 확장이 촉진되었다. 로마의 정치 체제는 군대의 능력주의와 정치의 혈통 상속(원로원의 수는 초기 수십 가문에서 100~200 가문으로 증가)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었다. 제국의 가장 큰 곡창 지대는 이집트에 있었지만, 중국의 양쯔강과 황하 유역에서 발견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았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격차가 컸고, 노예제는 필수적이었다. 귀족들이 누리는 풍요로운 삶은 노예들의 등에 기반을 두었다. 이러한 경제 현실은 필연적으로 정치 개혁을 방해했다. 인구의 약 3분의 1이 노예였고, 봉건주의와 능력주의가 혼합된 정치 체제 하에서는 "한마음 한뜻"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했다. 진한(秦漢) 왕조 이후의 중국 사회와 비교할 때, 로마 제국은 몇 가지 내재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귀족 대 평민, 자유 시민 대 노예, 그리고 노예제와 계속되는 정복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경제 기반이었다. 팽창적 정복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자 문명 자체는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

로마 제국과 한 왕조는 모두 북방 야만족의 침략 위협을 받았지만, 매우 다른 지리적 맥락에서였다. 한 왕조 영토의 최북단은 몽골 초원으로, 목축에만

적합하고 농경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로마 제국의 북부는 대략 같은 위도에 있었지만 멕시코 만류에서 오는 북대서양 해류 덕분에 훨씬 따뜻했고, 따라서 농경에 적합했다. 그러나 뾰족한 삼림 때문에 농업은 수천 년 지연되었다. 북방 야만 부족들이 농경을 위해 숲을 개간하는 법을 배우면서 농경 문명은 점진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로마 제국과 게르만 야만족 사이의 갈등이 격화된 상태였다. 서기 5 세기에 로마 제국은 게르만 부족에 의해 멸망했다. 제국 붕괴 후, 로마의 정치 체제는 그 내재적 약점 때문에 유럽에서 다시 발판을 마련하지 못했다. 로마 시스템은 농경 문명에서 최상의 정치 시스템이 아니었다.

로마 제국 멸망 후 1,000 년 이상이 지난 후에도, 원래 제국의 작은 민족 국가들과 북유럽의 신흥 봉신 국가들은 여전히 다양한 전쟁의 와중에 있었다. 서양에는 여전히 통일된 제국이 없었다. 유럽의 중세 시대는 중국의 "춘추전국시대(기원전 770 년 ~ 기원전 221 년)"와 매우 유사했다. 그러나 진한 왕조 이후 2,000 년 동안 안정적이었던 중국 제국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 사이의 뚜렷한 분기를 확실히 볼 수 있다. 당시 농경 문명의 정점에 서 있던 것은 정치 조직의 제도적 혁신 덕분에 중국이었다.

4. 현대 과기 문명의 출현: 동서양의 두 번째 분기점

서기 1500 년 이후 동양과 서양의 발전은 또 다른 큰 분기를 보였다. 이는 유럽과 중국(춘추전국시대 이후)의 역사를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었으며, 그 출발점은 대항해 시대로 표시된다. 항해 및 항법 기술의 발전은 신대륙 발견을 가능하게 했다. 유럽인들은 대체로 우연히 아메리카 해안에 상륙했다. 그리고 대서양은 로마 제국에게 지중해가 그랬던 것처럼 유럽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더 저렴한 운송 수단(항해)을 통해 유럽은 빠르게 지구상에서 가장 큰 농업 평야인 북미와 남미를 장악했다. "리 루의 현대화 논의"에서 주장했듯이, 처음에는 다양한 자연 조건이 아메리카 대륙의 농업 발전을 제한했다. 유라시아와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농업 관행이 미개발 상태였고, 동물 가축화는 미미했으며, 인구는 희소했다. 유럽인들이 가져온 모든 세균에 대한 면역력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수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유럽인들이 가져온 다양한 전염병에 희생되었고, 원주민 인구는 거의 전멸했다. 유럽인들은 작물

재배에 매우 적합한 이 광활한 아메리카 평야를 빠르게 점령했다. 아메리카 식민지를 통해 이 유럽 국가들은 중국 중부 평야의 곡창 지대보다 훨씬 더 큰 곡창 지대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엄청난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다.

농경 문명에서는 경제가 정상적인 발전 과정을 따르면 맬서스 함정에 빠질 때까지 성장한다. 그러나 서구의 이 함정으로의 추락은 또 다른 시대적 사건, 즉 과학 기술 혁명에 의해 예방되었다. 대항해 시대는 유럽 사람들에게 물질적 부를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이데올로기적, 정신적 혁명을 촉발했다. 유럽은 르네상스, 종교 개혁에서 계몽주의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 그것이 바로 과학 혁명이 탄생한 역사적 맥락이었다.

과학 혁명, 대서양 횡단 자유 무역, 자율적인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유럽 봉건 국가들 간의 경쟁과 같은 여러 요인들이 함께 인류 문명의 위대한 진보를 가져왔다. 과학 혁명과 자유 시장 경제는 거의 동시에 등장했으며, 그 조합은 수백 년간의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경제 성장을 낳았고, 마침내 경제가 농경 문명의 병목 현상을 돌파할 수 있게 했으며, 토지 자체가 더 이상 경제 성장의 제약이 아니게 되었다. 이 시기는 어떤 수준의 인구 증가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기하급수적인 경제 성장을 목격했다. 사실,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그러한 성장의 상한선을 보지 못했다. 바로 그때 인류는 현대 과거 문명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 시대는 현대 과학 기술과 자유 시장이라는 이중 엔진에 의해 주도되는 무한하고 지속적인 복합 경제 성장을 특징으로 한다.

자유 시장에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교환하며,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 1+1 이 2 보다 커진다. 지식이 교환될 때, 양측은 처음에 가졌던 것을 잃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이득을 얻어 승수 효과를 일으키며, 1+1 이 4 보다 커진다. 따라서 과학 기술 노하우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자유 시장에서 교환될 때, 지속적이고 상호 강화적인 선순환이 창출된다. 인간의 필요와 욕망의 끝없는 본성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끊임없는 혁신과 제공을 촉진한다. 시장은 승수 역할을 하며, 1+1 이 4 보다 큰 속도로 순환을 유지한다. 시장이 클수록 더 효율적이다. 시장이 더 효율적일수록 더 많은 요구가 충족된다.

이러한 원래의 요구가 더 많이 충족될수록 더 많은 수요가 창출된다. 자립적인 선순환 성장 사이클이 이어진다. 이것이 경제학에서 복리(compounding)로 알려진 것이다. 모든 사람이 과학 기술과 자유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경쟁은 시장의 규모로 축소되고 그 중심으로 집중된다. 상대적으로 말하면, 더 큰 시장이 더 효율적이고, 더 효율적인 시장은 더 큰 용량을 가지며, 더 큰 용량은 더 큰 경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더 큰 경제는 더 강력한 군대를 유지할 수 있게 하여 경쟁자들을 이기기 쉽게 만든다. 토지를 위한 경쟁에서 시장을 위한 경쟁으로의 전환은 농경 문명에서 현대 과기 문명으로의 전환을 반영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500 년 동안 목격해 온 변화하는 흐름이다.

처음에는 유럽이 여전히 농경 문명 시대에 살고 있었고, 다양한 봉건 국가들은 여전히 토지를 두고 전쟁을 벌이고 영토를 두고 싸우고 있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이 모든 전쟁 중인 국가들은 토지 자체의 제약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경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인을 발견했다. 경제 참여자는 더 이상 귀족이나 평민뿐만이 아니었다. 사업가, 자본가, 새로운 산업가 계급, 그리고 소비자들이 경제의 적극적인 참여자로 등장했다. 경제가 농경 문명에서 현대 과기 문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치 구조와 사람들의 요구도 변했다.

이 새로운 시대에 유럽 국가들 간의 오랜 경쟁은 빠르게 식민지 경쟁으로 바뀌었다. 식민 강대국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시장 규모였고, 식민지는 원자재, 시장, 노동력의 좋은 원천이었다. 최초의 진정한 세계 제국으로서 대영 제국이 새로운 세계 질서에 기여한 가장 중요한 공헌은 자체 통화(파운드 스텔링)로 운영되는 자체 식민지를 포함하는 글로벌 자유 시장 시스템이었다. 이 시장 시스템은 다른 주요 강대국들에 비해 결정적인 경쟁 우위를 제공했다. 그래서 농경 문명에서 현대 과기 문명으로 전환하는 초기 단계에서 유럽 국가들은 식민지 확장을 위해 해외에서는 식민 침략 전쟁을, 국내에서는 경쟁국 간의 전쟁을 벌였다. 토지와 시장 모두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다.

농경 문명에서 현대 과기 문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경제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경쟁하는 유럽 강대국들은 새로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정치 체제를 찾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일련의 제도적 혁신이 이루어졌다. 20 세기까지 세 가지 다른 진영이 등장했다: 독일, 일본, 이탈리아가 실행한 파시즘, 소련의 지도 하의

공산주의, 그리고 미국과 영국이 이끄는 자유주의였다. 그 후 거의 100 년에 걸친 갈등과 전쟁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파시즘(제 2 차 세계 대전 종식 시)이었고, 다음으로 공산주의(냉전 종식 시)가 왔다. 1990 년대 초까지 자유주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미국은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합법적인 단일 초강대국으로 부상하여 이전 시대를 마감하고 "아메리칸 오더(The American Order)"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5. 아메리칸 오더 하의 글로벌 시장 시스템

제 2 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직후, 미국은 점령했던 유럽과 일본 영토에서 승리하여 철수했으며, 이는 인류 역사상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제 2 차 세계 대전이 영토를 둘러싼 싸움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행동은 로마 제국, 중국 제국 또는 대영 제국의 어떤 행동과도 완전히 달랐다. 새로운 아메리칸 오더는 이미 현대 과기 문명의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농경 문명에서 중요했던 것이 영토의 크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면, 현대 과기 문명에서 중요한 것은 시장의 크기라고 나는 주장한다. 시장 규모가 경제가 장기적으로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시장 경제는 개인과 작은 주체(기업)를 중심으로 조직된 분산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결정하는 것은 국경이 아니라 시장 규모이다. 이런 식으로 농경 문명과 현대 과기 문명의 역학은 매우 다르다.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점령지에서 승리하여 철수한 것이 미국이 승리의 과실을 포기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전후 시대에 미국은 유엔, 브레튼 우즈 체제, IMF, 세계은행 등 일련의 국제기구를 설립하여 긴밀하게 짜인 글로벌 시장 시스템을 만들어 왔다. 미국은 규칙 제정, 시장 접근, 제재 부과 및 해제에 대한 통제권을 확실히 유지해왔다. 전후 유럽에서 미국은 마셜 플랜을 통해 유럽 동맹국들을 이 시스템으로 빠르게 끌어들이었다. 전쟁에서 패했지만 독일과 일본도 일련의 헌법 개정을 통해 이 시스템에 통합되었다. 미국은 또한 NATO, 미일 동맹, 한미 동맹과 같은 일련의 조약과 안보 협정을 통해 전 세계에 군사 기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는 미국 주도의 글로벌 시장에서 원자재의 안전한 운송과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아메리칸 오더의 창시자로서 미국은 항상 시장 규칙 제정, 시장 접근 회원 자격 부여, 규칙 위반 국가에 대한 제재 부과 및 해제 권한을 보유해왔다. 동시에 미국은 이 글로벌 시장을 보호하는 데 드는 비용(군사적 및

경제적)의 대부분을 부담해왔다. 권리와 의무가 함께 이 아메리칸 오더의 핵심을 형성한다.

미국은 또한 우리가 지금 소프트 파워라고 알고 있는 이념적 가치 체계를 확립하고 장려해왔다. 농경 문명 시대의 제정 중국은 법가주의(Legalism)를 중심으로 한 정치 체계와 공맹(孔孟)의 가치에 뿌리를 둔 신념 체계를 확립했다. 이 신념 체계는 미묘한 문화적, 정신적 영향을 통해 백성들의 자발적인 복종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이데올로기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입헌 정부, 법치, 자유 시장, 자유 경쟁, 자유 무역, 사유 재산의 신성함을 장려한다. 이러한 보편적 가치는 매우 강력하여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이 채택했다. 미국에 엄청난 성공을 가져다준 것은 바로 이러한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의 조합이다. 제 2 차 세계 대전 종식 이후 미국은 또 다른 세계 대전을 피하는 데 성공했고, 대부분의 경우 세계 평화를 유지해왔다. 그 위에, 미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글로벌 시장을 창출했다. 냉전 종식 이후 이 시장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모든 사람에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를 창출할 기회를 제공했다. 동시에 과학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 인스턴트 메시징과 인터넷은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을 연결하고 있다. 인류는 교육, 성 평등 및 인종 평등, 빈곤 완화, 인권과 같은 분야에서 전례 없는 진전을 이루었다. 평균 기대 수명은 크게 증가했다. 식민주의 종식 이후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거의 모든 독립 자치 국가들의 세계이다. 우리는 전쟁 관련 사망과 폭력의 현저한 감소를 목격했다. 모든 척도로 볼 때, 제 2 차 세계 대전 종식 이후 70 년, 특히 냉전 종식 이후 30 년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시기였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 깊이 존경받는 미국의 이데올로기와 "아메리칸 드림"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 모든 곳의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고 있다. 미국 문화와 미국 브랜드는 점차 글로벌 문화와 글로벌 브랜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와 권력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신념 체계"(道統, 도통 - 공자 정통성) 대 "정치 체계"(政統, 정통 - 정치적 정통성)의 문제가 여러 시대를 거쳐 논의되어 왔다. 전자는 공자 이데올로기를 의미하는 반면, 후자는 제국 통치자의 권력을 의미한다. 이들은 항상 별개의 개념이었다. 유사한 구분이 미국 맥락에서도 적용된다.

이데올로기적으로 미국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보편적 인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국내 및 외교 정책 수행 방식에 불일치가 있으며, 다른 국가와 그 국민을 대하는 방식에도 불일치가 있다. 국제 관계에서의 입장은 종종 국내에서 옹호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어떤 이유로든 문제의 반대편에 서게 된 국가들에게 특히 그렇다. 쿠바와 북한이라는 두 가지 예가 떠오른다. 미국은 이 두 나라를 모두 글로벌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했다. 쿠바의 경우는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쿠바는 많은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만 미국과는 그렇지 않다(제한적인 관계는 2015년에 복원됨). 미국의 금수 조치 때문에 쿠바는 글로벌 시장에 접근하지 못했고 가난한 개발도상국으로 남아 있다. 미국은 또한 이란과 같이 적이 된 이전 동맹국을 제재를 통해 주변부로 내몰 수 있다. 구소련 붕괴 이후 동유럽은 정치적 민주화 때문에 이 글로벌 시장에 초대되고 환영받았지만, 러시아는 푸틴 집권 이후 소외되었다. 중국은 실제로 특별한 경우이다. 중국은 정치 제도에 어떠한 개혁도 단행하지 않았고 여전히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정치 체제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 주도의 글로벌 시장에 어느 정도 완전히 통합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다양한 사상 학파들은 현행 WTO 규칙이 중국의 현재 현실을 고려할 때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는 데 동의하며 중국 정책에 대해 합의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경제적 하드 파워 중 하나는 글로벌 무역, 금융, 결제의 기본 통화로서의 미국 달러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미국은 상품, 서비스 또는 투자 등 세계의 모든 국경 간 거래를 추적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곳의 모든 은행의 모든 국제 비즈니스 흐름은 다소 미국의 감독 하에 있다. 이것이 트럼프의 이란 핵 협정 일방적 탈퇴 발표 이후의 발전에서 입증되었듯이 미국 제재가 매우 효과적인 이유이다. 중국 기업인 ZTE와 화웨이 역시 미국 제재의 희생양이 되었다.

미국의 하드 파워에는 또한 글로벌 군사 기지 네트워크, 경제의 엄청난 규모, 거대한 국내 시장, 개방적인 투자 환경, 경쟁력 있는 기술 부문, 세계적 수준의 대학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칠 때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미국 달러와 미국 자산이라는 안전한 피난처로 몰려들 것이다. 이는 2008년 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사실이다.

미국은 두 차례의 이라크 전쟁과 2008 년 위기 동안의 양적 완화 조치에서 입증되었듯이 군사적 또는 경제적 하드 파워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항상 단호하게 행동해왔다. 후자는 미국이 위기에 처한 국내 시장을 구제하기 위해 국제 자본을 활용한 전형적인 예이다. 미국은 오늘날 글로벌 시장의 모든 국가를 자신과의 거리에 따라 세 개의 동심원으로 효과적으로 배치했다. 대부분의 WTO 회원국이 있는 내부 원이 있고, 제한된 접근 참가자를 위한 주변부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포괄적인 제재 하에 있는 국가들을 위한 외부 원이 있다. 오늘날의 글로벌 시장은 아메리칸 오더에 의해 지배되고 통치된다. "리 루의 현대화 논의"에서 나는 현대 과기 문명의 철칙은 가장 큰 시장이 결국 유일하게 중요한 시장이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독립적인 시장은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고 경쟁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 주도의 시장이 유일하게 중요한 시장이다. 그러므로 이 시장에 대한 접근권이 어떤 나라가 번영하고 어떤 나라가 빈곤 속에 살 것인지를 결정한다. 미국이 그 열쇠를 쥐고 있다.

리선즈(李慎之, 1923-2003, 중국 지도자들의 고문 겸 번역가)는 그의 회고록에서 덩샤오핑이 권력 복귀 후 첫 공식 미국 방문길에 오르면서 미중 관계에 대해 말한 것을 회상한다. 덩샤오핑은 전후 시대에 미국과 동맹을 맺은 나라들은 모두 부자가 되었지만 소련 편에 선 나라들은 가난하게 남았다는 자신의 관찰에 근거하여 관계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는 이유를 말했다. 이 관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현재 글로벌 질서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다.

당연히 미국은 힘과 자신감이 넘치는 시기에는 아메리칸 오더를 유지하기 위해 주로 소프트 파워에 의존한다. 그러나 소프트 파워의 층을 벗겨내면 여전히 하드 파워의 핵심을 찾을 수 있다. 미국이 자신감을 잃을 때마다 소프트 파워의 허울을 벗어던지고 거리낌 없이 하드 파워에 의존한다. 미국의 하드 파워를 받는 쪽에서는 미국이 국내에서는 민주주의를 시행하지만 국제적으로는 헤게모니에 의존한다고 결론 내릴 가능성이 높다. 아메리칸 오더의 창시자로서 미국의 특권에는 시장 접근권, 시장 거부권, 선택적 제재 및 처벌권이 포함된다. 이러한 특별한 특권은 미국 하드 파워의 구성 요소이다.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 우리가 본 것의 상당 부분은 사실 그러한 하드 파워를 선호하여 전통적인 이데올로기를 버리는 것이다. 트럼프가 행사한 권력은 미국이

항상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다. 만약 옛날에 유교적 가치를 따르기를 멈추고 자비롭고 정의롭고 관대하기를 멈춘 중국 황제가 있었다면, 그 황제는 나중에 역사에 폭군으로 기록되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권력을 쥐고 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그에 대해 많은 것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같은 비유로,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은 모두 처음에는 트럼프의 불합리한 무역 정책에 항의했지만,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가 굴복하고 미국에 더 유리한 새로운 협정에 서명했다. 따라서 트럼프의 당선은 아메리칸 오더 맥락에서 미국 하드 파워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냈다.

6. 아메리칸 오더 하의 미중 관계

중국의 글로벌 시장 통합은 현대적인 현상으로, 청 왕조 시대인 1840 년 이전에는 중국의 국제 무역이 미미했다. 아편 전쟁은 중국의 고립을 종식시켰고 결국 중국을 유럽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글로벌 시스템의 준식민지 무역 실체로 강제 편입시켰다. 1949 년 중화인민공화국(PRC) 수립과 함께 마오쩌둥 시대의 현대 중국은 중앙 집권적 정치 체제, 계획 경제, 그리고 미국과 소련 모두와의 대결을 특징으로 하는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가졌다. 이 고립주의 정책은 중국을 미국 주도 시장과 소련 주도 시장 모두로부터 차단했다. 덩샤오핑 시대로 넘어가면, 중국은 일련의 시장 개혁과 개방 정책을 시행했다. 경제적으로 중국은 시장 기반 경제로 나아갔다. 정치적으로 시민과 사회는 공산당 통치에 도전하지 않는 한 더 많은 자유와 권리를 누렸다. 개인, 사회 전체, 그리고 민간 기업에 상당히 더 많은 자유가 주어졌다. 외교 정책 측면에서 중국은 미국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했고,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된 후 WTO 에 가입했다. 중국의 WTO 가입은 미국 주도의 글로벌 시장으로의 최종 통합을 의미했으며 아메리칸 오더의 완전한 회원 자격을 나타냈다. 중국은 아메리칸 오더의 규칙을 신중하게 따르고 낮은 자세를 유지했으며, 조용히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는 경제 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전략의 변화가 있었다. 중국이 급격히 부상하면서 중국과 미국 간의 비호환성 영역이 점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글로벌 무대에서 중국은 미국의 지배력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갈등이 발생했다. 경제 무대에서는 종종 미국의 참여 없이 중국 주도의 국제 기구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중국은 또한 남중국해의 군사화를 추구했다. 미국 경제는 세계 GDP 의 25%를 차지하지만, 글로벌 시장 유지와 관련된 군사 비용의 사자 몫을 부담한다. 미국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세계 GDP 점유율은 15%이지만, 비용 부담은 미미하여 무임승차자가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양자 마찰이 심화되면서 아메리칸 오더 유지 비용은 증가하기만 했다. 미국에게 중국은 점점 더 러시아처럼 되어가고 있다.

미국에는 중국 정책에 대한 네 가지 사상 학파가 있다. 최근까지 주류 사상 학파는 관여(engagement)였다. 그 지지자들은 중국의 시장 개혁이 미국과 국제 사회 전체에 좋다고 주장했는데, 왜냐하면 경제적 자유화가 정치로 파급되어 정치적 민주화를 이끌고 중국이 점차 미국과 비슷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미국의 소프트 파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미국이 중국에 미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었다. 반대편에는 봉쇄(containment) 학파를 지지하는 중국 매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중국이 공산당의 전체주의 통치 하에 있는 한 두 나라의 이데올로기는 결코 양립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중국의 경제력이 커짐에 따라 중국의 위협 수준이 단순한 적수에서 잠재적 적국으로 갈 것이라고 믿었다. 양 진영의 사람들이 미국 전통의 특징인 어느 정도의 선교사적 열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학파는 특히 재계에서 인기가 있었던 실용주의(pragmatism) 학파였다. 이 접근 방식의 근거는 중국의 부상이 미국 기업들에게 많은 사업 기회를 창출했다는 것이었다. 또한 양국은 모두 큰 핵 보유국이며 우호적으로 지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긴밀한 경제 관계는 글로벌 금융 위기, 핵 비확산, 기후 변화, 대테러와 같은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국의 협력과 지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네 번째 그룹은 주로 하층 및 중산층에서 나왔고 트럼프 당선에 기여한 포퓰리스트(populists)였다. 포퓰리즘 정책 지지자들은 자신들을 세계화와 중국 부상의 주요 희생자로 간주했으며, 실업과 미국 제조업의 공동화라는 병폐를 지적했다.

네 학파는 항상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모든 발전을 고려할 때 점진적인 수렴이 있었다. 중국에 WTO 회원 자격을 부여한 것이 실수였고 중국의 경제 부상이 아메리칸 오더에 가장 큰 도전이라는 데 대한 합의가 커지고 있다. 중국의 경제 부상이 정치적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면서, 관여 학파에 속했던 사람들은 매파 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 부상이 중국을 경쟁자에서 적으로 만들 것이라는 견해에 가까워지고 있다. 포퓰리스트들은 소득 격차 확대에서 중산층 정체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잘못된 모든 것에 대해 중국을 비난한다. 과거 중국의 글로벌 무역 시스템 통합을 확고히 지지했던 실용주의자들은 이제 마음이 바뀌어 점점 더 적대감을 가지고 중국을 바라보고 있다. 이유는 많다 – 외국 기업과 민간 기업에 대한 중국의 제한적인 정책, 의무적인 기술 이전, 중국에서 운영되는 기업에 공산당 세포 설치 요구, 국유기업(SOE)에 의한 독점 또는 시장 지배.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시작했을 때 중국 동조자가 거의 남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미국에는 진정한 중국 전문가가 항상 거의 없었다. 중국에 대해 장기적이고 전체적이며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공감적 이해"를 가진 사람들은 극소수이다. 반면, 중국에는 미국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어떤 경우든, 미중 관계의 현실은 오늘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러시아에 대한 인식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냉전 종식 후 짧은 밀월 기간을 즐겼다. 그러나 푸틴이 집권한 이후 러시아는 다시 한번 서방의 적수이자 잠재적 적으로 부상했다. 러시아는 글로벌 시장의 일원이지만, 핵심부가 아닌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일련의 국제 제재, 특히 몇 년 전 러시아의 크림 반도 병합 이후 부과된 제재 때문이다. 러시아 경제는 에너지와 천연 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군사 분야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전이 뒤쳐져 있다. 그리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러시아가 지금으로부터 20 년 후에 강대국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은 다른 이야기이다. 미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을 잠재적인 다음 러시아로 보고 있다. 이는 트럼프의 무역 전쟁이 받은 광범위한 지지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양당의 정치 및 비즈니스 엘리트, 심지어 평범한 미국인들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했다. 매파들은 심지어 중국을 WTO 에서 축출하거나 중국 없이 새로운 WTO 를 설립하고 중국과 별도의 무역 협정을 협상할 것을 주장하기까지 했다. 이것이 우리가 아메리칸 오더 하에서 미중 관계를 발견하는 현재 맥락이다.

20 년에서 30 년 사이에 중국은 글로벌 시장의 핵심부로 진입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의 세계 GDP 점유율은 15%로 상승했다. 만약 미국이 정말로 매파들이 추진하는 디커플링(decoupling) 정책을 시행한다면, 엄청난 반발에 부딪힐 것이고,

미국과 세계를 장기적인 불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디커플링 정책을 시행하고 유지하기 위해 매파들은 양자 간 긴장의 계산된 고조를 위해 중국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화웨이에 대한 포위는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화웨이가 구체적으로 표적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중국 기술 발전의 상징이자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제품과 기술은 가장 안보에 민감한 산업 중 하나에 속한다. 중국이 미국과 세계를 확실히 앞서고 있는 첨단 기술 분야 중 하나이며, 이는 안보 우려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공정한 말이다. 미국이 공포를 조장하고, 중국의 과잉 반응을 유발하며, 상황을 나쁨에서 더 나쁨으로, 최악으로 빠르게 몰고 가는 것은 매우 쉽다. 미중 관계가 적대적이 되거나 준전시 상태로 악화될 경우에만 대중은 중국의 글로벌 시장 시스템 탈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분열이라는 높은 대가를 간과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대만, 홍콩, 티베트, 남중국해와 같은 다른 양자 문제가 미중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7. 결론: 중국의 정책 선택과 미래

현재 상황에 대처하는 중국의 지혜가 실제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정책 선택지는 무엇인가? 미래 발전 궤적은 어떻게 보이는가? 나는 현대 과기 문명 달성이 중국의 핵심 목표로 남아 있는 한, 중국의 선택지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본다.

우선, 중국은 치명적인 실수를 피해야 한다. 그러한 중대한 오류 중 하나는 미국 정책 매파들의 의도치 않은 "협력자"가 되어 미국과 맞대응하고, 러시아처럼 아메리칸 오더의 파괴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결과는 매우 예측 가능할 것이다. 매파들은 빠르게 미국 주류 세력을 단결시켜 경제 디커플링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디커플링은 먼저 나머지 파이프 아이즈 국가(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확대될 것이다. 유럽과 일본이 합류할 것이고, 곧이어 나머지 세계가 뒤따를 것이다. 중국은 현재 러시아가 있는 주변부로 밀려날 것이다. 비록 확실히 가능하지만, 그 과정은 세계 경제에 막대한 단기적 타격을 줄 것이지만, 미국에게는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화웨이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만약 화웨이가 주요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면, 이 시장의 5G 기술은 중국 및

중국과 협력하는 소규모 국가들에 비해 일시적인 지연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또한 화웨이가 훨씬 작은 시장에서만 혁신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웨이에 비해 서구의 통신 장비 제조업체들은 더 자유롭고 더 큰 시장에서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조만간 그들은 화웨이를 따라잡을 것이다. 5 년, 10 년 또는 20 년 안에 화웨이보다 더 발전된 기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때가 되면 화웨이가 선두를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같은 분석으로, 만약 중국이 자발적이든 마지못해든 글로벌 시장을 떠나 고립된다면, 상당 기간 동안 자립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작은 시장은 더 큰 시장에 의해 추월당하고 압도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 경제는 하강 나선형으로 계속 위축될 것이고, 글로벌 시장은 상승세로 계속 확장될 것이다.

두 번째 가능한 치명적인 실수는 기존 정책을 극단으로 몰고 가고, 포퓰리즘 원칙이 경제 정책을 이끌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외국 기업에 더 많은 제한을 가하거나 국내 시장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 국유기업(SOE)은 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기술 선택에서 국내 중국 기업이 항상 승자로 선정될 것이다. 중국은 국제 시장을 실제로 떠나지 않으면서 또 다른 고립주의, 또는 소위 자력갱생 운동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세계화에서 민족주의로 뒷걸음질 칠 것이다. 이 정책 옵션은 당분간 불가피한 상황을 지연시킬 수 있지만, 결국에는 중국 모델(중국 특색의 국가 자본주의)과 미국 모델(자유 시장 자본주의)을 충돌 경로에 놓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상호 패배 또는 상호 확증 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가 될 것이다.

인간은 수천 년 동안 농경 문명 속에서 살아왔지만, 현대 과기 문명은 겨우 200 년 전에 등장했고, 현대 시대의 아메리칸 오더는 겨우 70 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여전히 농경 문명의 오래된 정신 모델에 고정되어 있으며, 오늘날에도 어제의 정치적 목표에 갇혀 있다. 농경 문명에서는 토지가 매우 중요했다. 중국 제국 역사의 대부분의 전설적인 인물들은 기존 영토를 방어하고,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며, 미래 세대의 복지에 기여함으로써 그들의 지위를 달성했다. 그러나 지난 500 년간의 갈등과 전쟁은 현대 과기 문명이 지도자의 유산을 판단하는 데 있어 이전 시대와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매우

분명하게 만들었다. 한때 영원한 영광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정반대로 판단될 수도 있다. 이것이 내가 농경 문명과 현대 과기 문명의 구분을 특별히 강조하여, 현재 사건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오래된 정신 모델을 적용할 때의 맹점을 상기시키는 이유이다.

오늘날 중국의 일부 사람들은 중국 경제가 너무 커져서 숨길 수 없게 되었고, 덩샤오핑의 "냉정하게 관찰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며, 입지를 지키고, 역량을 감추며, 때를 기다리다가, 가능한 영역에서 성과를 이룬다(도광양회, 韜光養晦)"는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들은 미국이 더 이상 중국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동시에 그들은 중국의 정치 체제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미국과의 갈등이 불가피하고 양국은 미래에 전쟁을 치를 운명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최선의 정책 옵션은 현재 상황을 활용하여 미국 주도 시스템과 경쟁하고 결국 대체할 중국 주도의 국제 무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견해는 아메리칸 오더와 중국의 국내외 힘 모두를 오독하고 오판한다.

경제적으로 아메리칸 오더 하에서는 모든 WTO 회원국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는 자유롭고 경쟁적인 글로벌 시장이 있다. 제 2 차 세계 대전 종식 이후, 미국의 옛 적국이었던 독일과 일본은 각각 세계 GDP 의 5%와 6%를 차지하는 주요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다. 개혁개방 정책 이후 중국의 세계 GDP 점유율은 1.75%에서 15%로 상승했다. 아메리칸 오더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미국은 제 2 차 세계 대전 종식 시 약 50%였던 세계 GDP 점유율이 오늘날 25%로 하락했으며, 이 글로벌 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말해서 아메리칸 오더는 기본적으로 관대하고 공정했다. 어떤 WTO 회원국도 실제로 이 무역 시스템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다. 중국이 규칙을 준수하는 한, 성장할 여지는 여전히 충분하다. 현재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경쟁력에 대해 자신감을 유지하고 있다.

기존 세계 질서에 도전하기 위해 국가는 국내에서 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데올로기 체계가 필요하다. "중국몽(China Dream)"이 중국 국민들에게 얼마나 잘 받아들여졌는지를

판단해 볼 때, 중국은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고 필요한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정치적으로 아메리칸 오더 하에서 모든 국가는 원하는 대로 발전할 자유로운 재량권을 가진다. 아메리칸 오더는 주로 글로벌 시장 접근 및 퇴출 규칙에 몰두한다. 다른 국가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 많은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유엔 헌장은 "이 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 평등 원칙에 기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아메리칸 오더 하에서는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에 직접적으로 도전하지 않는 한 다른 정치 체제가 발전할 수 있다. 중국의 세계 GDP 점유율의 급격한 성장(2% 미만에서 15%로)이 이를 증명한다. 실제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여지는 충분하다.

현대 과기 문명에서 경제 발전은 반드시 특정 정치 구조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한 국가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정치 체제도 진화한다. 경제 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거의 모든 국가가 비교적 중앙 집권적인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를 선택한 국가들조차도 공화국 형태의 입헌 민주주의를 선택했다. 예를 들어 산업 혁명 당시 영국은 입헌 군주국이었다. 글로벌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식민지 확장에 의존했다. 그때는 피비린내 나는 정치의 시대였다. 미국 경제 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미국 시민의 10% 미만만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은 식민 강대국은 아니었지만, 당시 노예제를 가진 가장 큰 국가였다. 일본, 독일 및 기타 국가들은 개발 초기 단계에서 파시즘과 외세 침략과 같은 훨씬 더 파괴적인 길을 선택했다. 좋은 소식은 경제 발전과 생활 수준 향상과 함께 주요 서구 국가들이 점차 입헌주의, 민주주의, 인권, 자유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진화 과정은 현대 과기 문명 시대의 경제 발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개발도상국의 정치 체제에 대해 엄격한 규칙을 두지 않았으며, 모든 개별 국가의 주권을 존중한다. 모든 회원국은 유엔에서 평등하며 중국에 대한 본질적인 차별은 없다. 중국이 이 기회를 포착하여 아메리칸 오더의 글로벌 시장 규칙을 따르고 도전하지 않는다면 경제 성장의 잠재력은 여전히 막대하며 "투키디데스 함정"을 피할 수 있다.

이 분석에 기초하여 적절한 정책 옵션은 덩샤오핑이 제시한 경로를 계속 따르는 것이다. 주요 국가 간의 새로운 관계 모델을 구축함에 있어 중국은 미국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것을 피하고, 현대 과기 문명의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을 존중하며, 규칙을 따름으로써 "투키디데스 함정"을 피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중국은 시장 자유화 노력을 계속하고, 더 시장 지향적이고 개방적인 경제를 촉진하며, 국유기업 개혁(자산 관리에서 자본 관리로 이동)을 수행하고, 내수 수요를 견인하여 중국이 세계 경제에 합당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중국은 미국 주도의 국제 기구를 지원함으로써 세계 GDP의 15% 점유율에 상응하는 글로벌 시장 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08-09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모범적이었다. 국내적으로 중국은 경기 부양책(4조 위안 또는 6천억 달러 규모)을 도입하고 일련의 경기 부양 조치를 시행했으며, 2008년 세계 경제 성장의 절반에 기여했다. 국제적으로 중국은 미국 통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매입했다. G20 설립을 위한 미국의 이니셔티브에 참여하여 중국과 다른 주요 경제국들은 조정된 통화 및 재정 정책을 도입하여 금융 위기의 확산을 막고 1930년대 대공황의 반복을 피했다. 위기 동안 중국은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로서 행동했고 국제 사회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아메리칸 오더 자체도 진행 중인 작업이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질서는 강력하다. 후자는 NATO, 미일, 한미 및 기타 안보 동맹과 같은 일부 선택적 군사 동맹과 전 세계 군사 기지를 통해 시행된다. 정치적으로 질서는 주로 소프트 파워에 의존한다. 유엔은 회원국의 주권 평등을 존중하고 모든 국가의 주권, 자유, 평등을 인정한다. 한 국가가 경제 제재를 받더라도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독립적이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유럽 국가, 파이브 아이즈 국가, 일본, 한국 등 포함) 간의 협정은 다소 느슨한 연방과 유사하다. 유럽 연합은 더 성숙한 연방 시스템이다. 장기적으로 현대 과기 문명의 철칙은 가장 큰 시장이 결국 유일한 시장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란, 북한, ISIS와 같이 이 시장에서 배제되고 미국 가치를 거부할 수도 있는 국가들조차도 여전히 미국 달러에 굴복해야 한다. 단일 글로벌 시장이 불가피하다면 모든 국가는 정치적으로 수렴할 것이다. 향후 수십 년 또는 수 세기 안에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오늘날의 글로벌 과제는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높일 것이다.

기후 변화와 같은 글로벌 과제는 국경이 없으며 글로벌 대응이 필요하다. 빠르게 발전하는 국가들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은 특히 사실이다. 세계 리더십에

대해 다른 국가들을 설득하기 위해 중국은 나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인공지능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유전자 편집, 생명 공학 및 IT 혁명을 포함하여 현재 경제 질서에 새로운 도전을 제시한다. 중국은 이러한 공통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핵무기의 위협이 있다. 어떤 나라도 핵전쟁의 위협을 용납할 수 없지만, 강대국 간의 경쟁 결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도전은 중국이 기존 글로벌 시스템의 범위 내에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한다. 반대로 중국이 이를 강제로 바꾸고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대체하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거의 확실히 재앙적일 것이다.

현재 중국은 국내적으로 중진국 함정 문제와 국외적으로 투키디데스 함정 문제를 동시에 다루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경제 성장을 계속해야 한다. 문제가 적절하게 처리되면 성장통의 일부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형되어 중국을 바로 중진국 함정으로 이끌 수 있다. 이 함정을 탈출하고 선진 경제로 성장하기 위해 중국은 아메리칸 오더 하의 미국 주도 글로벌 시장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넓게 말해서, 우리는 여전히 진화하고 있으며 최종 목적지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아메리칸 오더 하에 살고 있다. 중국과 세계의 많은 다른 국가들의 사회-정치 시스템과 경제 발전은 여전히 문명 2.5(농경 문명과 현대 과기 문명 사이)의 과도기 단계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고도로 통합된 시장은 또한 국가와 민족을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더 가깝게 만들 것이다. 최종 형태가 연방이 될지, 연합이 될지, 느슨하게 또는 긴밀하게 구조화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회-정치 구조는 농경 문명의 산물이며 현대 과기 문명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어떤 경우든 각 국가는 자체 정치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할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농경 문명에 가장 적합한 정치 구조를 구축했던 중국은 그때까지 정치 권력의 공평한 분배를 달성한 최초의 국가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 중국이 현대 과기 문명으로 전환할 때 이러한 정치적 전통을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대 과기 문명에서 글로벌 질서를 창조한 미국은 그 정점에 서 있다. 중국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미국의 경험에서 배우면서 다음 세 가지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투키디데스 함정 피하기, 중진국 함정 탈출하기,
그리고 글로벌 시장 유지 비용의 비례적 몫을 부담하기. 이러한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의 포괄적인 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이다.